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개 돼지 발언'의 사회학적 의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의 발언은 최상류 1%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사회관을 보여 준다. 그는 똑똑한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면서 민중들의 호구지책을 마련해 주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생각한다. 그의 '개·돼지 발언'은 못난 것들은 그저 밥 먹고 살면 그뿐이지 그 이상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그렇다면 누가 잘난 엘리트가 되는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조기 영재교육에 이어 국제고나 외고·과학고 등에 진학하여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스카이 대학'을 거쳐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 사회의 엘리트로 등극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해도 엘리트가 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용천에서만 용이 난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로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자식의 신분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은 신분제 철폐를 요구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는 신분 의식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양반집 자제들은 집안의 하인들에게 반말을 했고 하인들은 나이 어린 상전을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위아래를 가르는 신분 의식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 대신 새로운 양반층이 형성되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고등고시를 통과하여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음을 헌납했다. 고시를 통과해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은 스스로를 엘리트이자 새로운 양반으로 생각했다.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교수가 된 다음 장관,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이 되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으로 대표되는 자수성가형 인물이 되는 길도 있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자영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 대학에 유학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 유학생이 급증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원리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다.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신들이 못 배운 한을 풀고 자식들에게 '떳떳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자식들을 대학에 진학시켰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게 되었고 대학을 나와도 정규직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는 사라졌고 하강 이동의 길만 남아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80 : 20의 사회에서 90 : 10의 사회를 거쳐 99 : 1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이제 정부의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만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는 시기가 온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민중들은 개·돼지와 같으니 그저 밥만 먹고 살게 하면 된다"는 영화 속의 대사를 덧붙였다.

자기 자식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가난한 청년의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연민의 감정을 표시한 기자에게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송현숙 부장이 여러 번에 걸쳐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발언은 취중의 실언이 아니고 그의 평소 소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23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관료로 일하다가 청와대 근무를 거쳐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들 사이에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의 철학이 불평등을 옹호하는 엘리트주의였다면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사회관과 정서를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그런 의심을 지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학자·작가〉

커피 한 잔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엘리트여, 타락을 멈추라

바티칸의 성 베드로성당은 면죄부(Indulgentia)를 팔아 지었다. 16세기 초 교황 레오10세가 장본인이다. 성직자들은 유럽 전 교구에서 농민과 수공업자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았다. 사제들의 설교에는 이런 구절마저 있었다. "상자에 쨍그렁 소리가 나자마자 돈을 넣은 사람의 영혼은 연옥(煉獄)을 떠나 천국으로 가나니…"(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 27조에 나온다)

중세의 엘리트였던 성직자. 신을 빙자한 그들의 사치는 진창에서 가축과 함께 살며 사계절 옷 한 벌로 지내는 농민들을 쥐어짜는데 가책이 없었다. 결국 가톨릭 세속주의는 무너졌다.

혁명 전 프랑스 국민들의 삶은 비참했다.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이 한 푼의 세금을 안 내는 데 반해 농민들은 중과세에 허덕였다. 가장 악명 높은 건 '가벨르'라고 불린 염세(鹽稅)였다. 모든 농민은 국가 전매품인 소금을 시세보다 열 배 비싼 값으로 1년에 7파운드씩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소금을 뿌려 먹을 고기나 생선은커녕 거친 빵도 부족한 형편인데도 말이다. 가벨르를 못 내 투옥되는 사람 수가 매년 3만 명, 처형되는 수가 매년 500명이었다는 기록이니 믿어지는가.

반면 성직자와 귀족들은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 슈트라스부르 대주교는 한 번에 2천 명이 무도회를 열 수 있는 저택에 수만 점의 은제 식기와 180필의 아라바아산 말을 소유했다. 귀족들은 사냥을 즐겼는데, 토끼와 여우·사슴이 아무리 농작물을 해쳐도 농민들은 사냥감인 그 동물들을 해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마리의 사냥개와 기마 사냥대가 경작지를 짓밟고 지나가도 항의할 수 없었다. 1789년 7월 14일 혁명이 터지자 부패한 지도층은 살육의 대상이 되었다.

청말(淸末) 중국 관리들의 타락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18개 성(省) 1천500개 부·주·현(府·州·縣)의 200만에 달했던 지방관리와 아전들은 조세의 권한을 징세업자에게 팔았다. 징세업자는 할당량을 납부한 뒤 재량껏 농민들을 더 쥐어짜 차지할 수 있었다. 징벌권까지 가진 이들은 멋대로 매긴 세금을 못 낸 농민들로부터 토지와 어린 딸을 빼앗았다. 아편전쟁 무렵 린쩌쉬(林則徐)가 부임해 목격한 광동 지방 농민들의 삶은 인육을 먹는 자가 흔한 생지옥이었다. 청나라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망했다.

남의 나라를 들출 것도 없다. 고려 중엽 문신들의 타락은 무신의 난을 불렀다. 무신들은 더욱 타락했고 고려는 망했다. 검박·강건하던 조선 사대부정치도 200년을 못 갔다. 조선 후기 지배 엘리트들은 매관매직과 가렴주구로 춤을 췄다. 갓난애를 군역에 올려 밭 갈던 소를 끌어가 버리니 통분한 가장이 양물을 잘라 버리는 애절양가(哀絕陽歌)가 낭자했다.

엘리트가 타락하면 체제가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그 불길한 징조들이 요즘 극적으로 쏟아진다.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의 타락이 무서운 건 부패를 단죄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의 부패, 바로 검찰의 타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조선의 군왕들은 엘리트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암행어사(royal secret prosecutor)를 운용했다. 그러나 영·정조 이후엔 암행어사들이 타락해 버렸다. 이후 헌종·철종·고종의 역사는 고스란히 망국의 역사다.

벤츠 여검사, 피의자와 간음한 검사, 심야에 노상에서 음란한 짓을 한 검사가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일탈'로 치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까지 된 엘리트가 직무를 돈과 바꾼 상황이다.

그의 눈빛을 보면 초임 검사 시절 짧게라도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수호자라 자부해 본 적이 있기나 했을까 의심스럽다. 그 혼자만이 아니다. 화장품 장사로 졸부가 된 노름꾼의 뒤를 봐주는 값(수임료가 아니라 뒤 봐주는 값이다)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전직 거물 검사가 있다. 최후의 엘리트로 남아야 할 검사들이 크게 타락한 것이다.

이승만 이후 남한 사회의 부패는 차곡차곡 더께를 쌓아 왔다. 주로 기업, 관료, 군, 의료계, 학계, 교육계의 부패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 부패가 이젠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 터져 버릴 것만 같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다. 엘리트여, 청빈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제발 거기서 타락을 멈추라.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칼럼 '커피 한 잔'이 신설돼 격주로 실립니다. 광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조 교수는 칼럼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 고

시화(詩畫) 마을을 찾아서

박 종 윽
월간 한맥 문학동인회 회장

얼마 전 광주 북구 시화마을을 방문했다. 시인이 시화마을을 찾는 기쁨은 가슴 벅찬 감격이었다. 늘 고향으로 생각했던 광주였지만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니 많이 생소하고 조금은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시화마을에 들어서자 그 마음이 사라졌다. 민주화의 산실로만 강하게 느껴졌던 광주에서 뜻밖에 시화마을을 만나다니.

문인으로, 시인으로서 봄과 가을 수없이 많은 시화전과 문학기행을 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광주시 문화동 시화마을 같은 건 없었다.

시화마을은 쭉 뻗은 순환도로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왠지 모를 사람 냄새가 나는 듯했다. 안내판에서도 사람의 향기가 느껴졌고 여기저기 시멘트 담벼락에 붙여진 시화들의 시어가 새삼 파란 하늘을 닮아 맑았다.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 양옥균 위원장님의 자상한 안내로 홍보관, 교육관, 창작관, 공연장 등을 둘러보며 주거와 문화가 복합된 문화마을은 주민 주도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일궈낸 아름다운 마을임을 알게됐다.

본격적인 시화마을 소개는 안병국 선생이 맡았다. 지극히 평범했던 골목길은 그간 주민들의 땀방울과 노력으로 멋진 문화 공간이 됐다. 산뜻한 벽화와 학생들의 재치있는 그림, 그리고 애교스럽게 손짓하는 문패, 평소 좋아하는 시를 자기집 담벼락에 붙여 집집마다 아름다운 시어들이 가득했다.

소소한 시어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에 고향 후배 문인화와 동인 선배 문인의 작품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이 지역에 꽁꽁 숨어있는 게 아쉬워 한국문인협회가 앞장서 곳곳에 낙후된 마을을 찾아 일회성이, 아닌 마을 행사를 펼쳐보면 어떨까 잠시 소망해보았다.

삭막한 도시 공간이 시화마을로 탈바꿈한 덕에 아이들이 시와 그림과 함께 뛰놀고 돌 돌 흐르는 물소리 따라 콧노래 부르며 또 다른 내일, 아름다운 시와 그림을 그려가며 살아가면 좋겠다.

지역 문인화의 거목 금봉 박행보 선생의 작품이 전시된 금봉미술관은 입구부터 먹향 머금은 육자배기 가락에 고수의 추임새처럼 끊길 듯 휘어질 듯 사그락거리는 댓닢바람이 시원했고 대작인 풍죽 그늘이 한가로웠다.

시화마을을 떠나며 시 한편이 읊조려 본다. '한 시대가 걸었던 그 길/ 빛고을 광주의 詩畵마을/아파트 담장엔 詩와 그림으로 옷을 입히고/허물어진 방음벽 사이로 이웃과 마주하며/낡은 대문에 방긋 맞아주는 문패/지난 흔적들에 멈춘 조형물의 울림/도랑물 흐르는 산책로에 詩畵와 만나/구름에 실려가듯 너와 나 손잡고/시대를 앞 선 문화동이 문화를 선도하며/넉넉한 예향의 시화에 젖어/봉의 맑고 굵직한 풍죽 그늘에 쉬어 간다'

시화마을을 뒤로하며 시인으로 아쉬움도 남았다. 오랜 풍파에 퇴색돼 상처로 몸살 앓는 벽화들, 계절보다 웃자란 나무와 잡풀에 덮여 가려진 시화들을 보니 하루쯤 팔 걷어붙이고 풀이라도 베어주고 싶었다.

곳곳에 설치된 작자 미상의 조형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며, 귀한 작품들이 고철이 될 위기에 빠지는 등 수명이 다한듯해 마음 아팠다. 특히 시화마을에 시비(詩碑)가 없어 더욱 안타까움이 컸다.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아름다운 시와 그림을 만날 수 있는 시화마을. 예향답게 아이들 소풍 장소에서부터 젊은 학생들의 문화탐방 코스로, 더 나아가 문인들의 시화전과 낭송회 등 많은 문학 기행이 열리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여기에 주변 볼거리, 먹을거리, 토산품 판매까지 어우러진 멋진 광주시 문화동 시화마을을 소망한다.

社 說

다시 확인된 KTX 무안공항 경유의 당위성

호남선 KTX가 운행되면 철도 이용객의 수도권 접근이 쉬워져 광주공항 항공 탑승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빗나갔다.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 이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광주공항 운항편수는 1만2112건이었다. 이에 비해 호남선 KTX가 뚫린 지난해 4월부터 1년 사이 광주공항 운항편수는 1만1789건으로 집계돼 실제로는 423편만 줄었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가 광주~제주 노선에 취항한 결과다. 티웨이 항공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광주~제주 노선에 매주 21편을 운항해 광주공항의 현상 유지가 가능했다는 풀이다.

특히 전북과 충청 지역 주민들이 KTX를 이용, 송정역과 인접한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감안한다면 호남선 KTX 2단계가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하고 국제선 정기 노선을 확보할 경우 다른 지역민의 발길도 점차 늘어 자연스럽게 공항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지역민들은 호남 KTX 2단계 노선에 꼭 무안공항을 포함시켜야만 지난해 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던 공항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향후 10년간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이를 누락시킨 상태다.

이번 공항 이용 분석은 호남선 KTX의 경유로 무안공항도 활기를 띠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또 지역의 판단과 주장이 옳았고 명분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따라서 이제 호남선 KTX 연계가 무안공항 활성화의 관건으로 대두된 만큼 정부는 국가 철도망 계획부터 수정해 침체에 빠진 무안공항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등산 안전사고 느는데 산악관측소 없다니

국토의 64%가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우려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를 관측하고 예방하는 산악기상관측망은 고작 120여 곳에 불과하다. 산악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탐방객이 360만 명에 이르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기상기후 예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광주지방기상청 주최로 열린 '기상기후 빅데이터로 풀어 가는 무등산 가치 창출'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다.

우선 전국 산악기상관측망 실태를 보자. 지난 6월 현재 123개소에 불과한데, 호남권에서는 전남 17개소와 전북 11개소 등 28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있다. 하지만 무등산이 위치한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산악기상관측망은 산림재해가 잦은 지역의 기온, 습도, 풍향·풍속, 강수량, 기압 등을 실시간 관측한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질 높은 산림재해 예측 정보를 활용한다. 때문에 산악기상관측망이 없다는 것은 산림재해에 무방비 상태라는 말과 같다.

산악기상관측망이 구축되면 산악 지역의 기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산림재해 예측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등산객 증가와 함께 산악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기후 응용 정보 개발이 시급하다. 산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온, 바람, 강수 등 자료를 분석해 탐방객에게 유용한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등산코스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공하면 등산객의 안전은 물론 국립공단이나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산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無 等 鼓

즐겨라! 음악축제

지난해 여름, '구례 록페스티벌' 소식을 들었을 땐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무리 '록페'가 유행이라곤 하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구례 록페'에 간 건 가깝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다. 지역에 페스티벌이 별로 없어 서울 등으로 '원정 관람'을 가곤 하는데 공연을 볼 땐 즐겁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오는 건 고역이라 언제부터 시큰둥해졌다. 구례 공연은 장기하와 얼굴들, 노 브레인, 국카스텐 등 라인업도 괜찮았다. 공연 장소가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라고 하니, 음악도 듣고 구경도 하자는 마음이었다.

국카스텐 팬이긴 했지만 '라이브'로 듣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거울', '꼬리' 등 음원으로만 듣던 곡을 직접 들으니 가벼운 흥분이 일었다. 서울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내려온 팬들이 분위기를 주도했고, 무대 매너 역시 훌륭했다. 마지막, '나는 가수다' 출연 때 불렀던 '한 잔의 추억'으로 관객은 하나가 됐다.

올 여름엔 지역에도 '음악 페스티벌 풍년'이 들었다. 페스티벌의 생명은 '라인업'인데 '광주사운드파크음악페스티벌'(사직공원 일원)은 이승환, YB, 10cm, 샘김을 초청했다. 팔로알토 등 올해 대세로 떠오른 힙합 장르 뮤지션들도 전면에 내세웠다.

'난장사운드페스티벌'(광주여대)은 '복면가왕'의 '우리 동네 음악대장'으로 인기를 모은 국카스텐을 비롯해 안녕바다, 짙은 등으로 라인업을 짰다. 두 축제는 같은 날(9월3~4일) 열려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8월27일)에는 김창완 밴드, 크라잉 넛, YB, 장미여관 등이 출연하며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조만간 출연진을 발표한다.

여전히 유명 록페에 비하면 해외 아티스트도 없고 라인업도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축제엔 그 어떤 것도 '즐기는 자'를 따라오지는 못한다. 페스티벌의 매력은 야외 공연이라는 점에도 있다. 돗자리 깔고 앉아 치킨에 맥주 마시며 가볍게 몸을 흔들어도 좋고, 기분 내키면 무대 앞쪽으로 달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좋다.

구례에서 '관광버스 춤' 추며 록음악을 즐기시던 동네 어르신들을 잊지 못한다. 올 여름엔, 내 맘대로 즐기자.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